

목포시, 스마트폰 앱으로 대형폐기물 배출하세요



목포시민의 대형폐기물 배출이 한층 편리해졌다. 목포시는 26일 대형폐기물 배출 시 겪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대형폐기물

(주)같다·'빠기'와 협약...내년 1월부터 서비스 시작 납부필증 없이 모바일 결제·중고 센터 연결 제공

물 간편 결제 서비스 운영업체인 ㈜같다(대표이사 고재성)와 모바일 앱 '빠기'를 도입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김중식 목포시장은 "모바일 앱이 대형폐기물 배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폐기물 재활용률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배출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

비스를 비롯해 중고 재활용 센터와 연결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은 오는 11~12월까지 준비 작업을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고재성 대표이사는 "전라남도에서 첫 '빠기' 시행을 목포시와 함께 할 수 있어 뜻깊다"면서 "목포시의 탄소배출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폐자원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빠기'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목포=박정수 기자



무안군, 가을·겨울 양배추 수급조절 '총력'

600㎡당 포전정리비 50만원 지원
무안군은 최근 양배추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배농가들을 돕기 위한 수급조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는 관내 가을·겨울 양배추 재배면적이 415ha에서 927ha로 작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농가들은 양배추 소비감소와 인건비 상승, 미국원 불나방 발생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양배추 가격안정과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가을 조생 양배추 농가에 포전정리비를 지원하고 10월 말까지 포전정리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총 7억 8800만원(군비 6억 2500만원)을 투입해 105ha에 대한 포전정리를 지원할 계획이며,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지원금을 600㎡당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렸다. 무안=이성기 기자

"꽃단장 마친 함평에서 가을 추억 여행 떠나요"

'대한민국 국향대전' 다음달 5일부터 17일까지 개최



가을 축제의 대명사인 '2021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오는 11월5일부터 17일간 함평 엑스포공원 일원에서 개최된다. '지구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올해 국향대전에는 국화

분재와 조형물 그리고 미디어아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획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관광객들은 축제장뿐만 아니라 함평천 생태습지공원에서도 다양한 볼거리들이 마련돼 있어 가을 정취를 물씬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생태습지공원에는 길을 따라 펼쳐진 넓은 국화들녘과 울긋불긋한 핑크몰리, 금역새 탐방길 등 가족·지인과 함께 추억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이 곳곳에 조성돼 있다. 또한, 함평천 양안으로는 코스모스가 만개해 있으며 밀원수 존에는 수국, 라벤다, 역새가 장관을 이루고 있어 관광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한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삼호읍 임시선별검사소 비대면 워크스루 부스 설치 운영

의료진·피검자 비대면 검체 채취 가능으로 효율적 검사 진행

영암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임시선별검사소를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확보하여 지난 7월부터 운영 중인 삼호읍 한마음회관 옆의 전막형 임시선별검사소를 비대면 워크스루 이동검사소로 변경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 의료진들이 방호복과 마스크를 쓴 채로 무더위와 한파에 장시간 외부에서 근무하면서 피로도가 가중되는 임시선별진료소를 워크스루 부스로 변경 설치 운영하게 됨으로써 개선된 환경에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게 되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2주 1회 진단 검사 행정명령 등으로 기업체 및 공

단이 밀집해 있는 삼호읍 검사 건수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종식 시까지는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영암군보건소에서는 10월 31일까지 확산장과 영암장에서 찾아가는 재래시장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외부 상인들과 지역주민들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대비하여 '월출산기린랜드'에 10.25~11.21까지 9:00~17:00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 상시 운영하여 타지역 관광객에 의한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영암=조대호 기자

영광군,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 챌린지' 동참

영광군은 지난 25일 생활 속 에너지 절약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냉온수기 오프(OFF)! 환경 온(ON)! 챌린지'에 동참했다. '냉온수기 오프(OFF)! 환경 온(ON)! 챌린지'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퇴근 후 야간에 낭비되는 냉온수기 대기전력을 차단하는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목표로 하는 챌린지로 9월 8일 충청남도에서 시작했다. 김중순 군수는 이재현 인천서구청장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됐다.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김병내 광주시 남구청장, 김중곤 영광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재영 농협 영광군지부 지부장을 지명했다. 김중순 영광군수는 "영광군청에서도 대기전력을 차단하고 에너지효율 1등급 전자제품 우선 구매하는 등 탄소중립을 위한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신안군, '1004섬 중고 농기계 직거래 마켓' 운영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신안군은 오는 11월부터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중고 농기계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1004섬 중고 농기계 직거래 마켓'을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04섬 중고 농기계 직거래 마켓'은 농민들이 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중고 농기계 구입에 따른 매매 중개 수수료를 절약하고, 중고 농기계가 제값을 받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설하는 마켓으로,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축산인과 법인은 누구나 쉽게 가입을 할 수 있다. 마켓을 통한 중고 농기계의 모든 거래는 마켓에 가입한 거래 당사자들끼리 자유롭게 진행이 되며, 마켓 문자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매물을 바로 확인함으로써 필요할 때 중고 농기계 매매를 할 수 있다. 더불어, 마켓 댓글을 통해 이웃 읍·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신안군의 농정업무에 홍보하는 등 신안군 농민들의 소통의 장으로써도 활용도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군에서는 이 마켓의 직거래 실적에 따라 '22년에는 중고 농기계 수리비도 지원할 계획으로, 농기계를 상시 수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인식 전환과 중고 농기계의 장기간 사용을 유도하여 물자 절약과 환경 보전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이덕주 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